

죽음 본능과 엔트로피, 그리고 브룩스 서사이론을 넘어서

김효선

1.

이 글의 목적은 브룩스(Peter Brooks)의 서사 이론에 내재된 낭근주의적 시각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임을 밝히는 데에 있다. 주장의 근거는 『쾌락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1920)에 나타난 프로이트의 논의와 엔트로피 법칙과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¹⁾ 프로이트 이론과 엔트로피 법칙은 공통적으로 '죽음, 혹은 종결 직전의 평형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브룩스가 상정한 서사구조에서도 역시 강조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프로이트 이론의 경우, 그 평형은 '하향적' 소강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브룩스가 강조하는 "극적 분출"(discharge), 혹은 "고조된 전환"(climax)과는 거리가 있다. 나는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을 '일방향성'에 두고, 브룩스의 서사이론에 대한 분석과 보완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프로이트 이론과 열역학 법칙과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우선 프로이트가 실제로 자신의 논의에 열역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르하임(Rudolf Arnheim)이, "프로이트가 직접적으로 엔트로피를 언급한 예는 없었고, 따라서 그가 유일하게 아이디어를 차용한 사람은(엔트로피와 익숙했던)페히너(G. T. Fechner)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No direct reference of Freud himself to the entropy principle is known, so that his one explicit source may indeed be

1) 자연현상의 변화는 물질계의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 2법칙에 해당한다. 열역학 제 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에너지의 상태를 '사용가능한 에너지'(available energy)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unavailable energy)로 양분했을 때,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감소는 곧 엔트로피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 엔트로피 개념은 "죽음 본능"(death instinct)과 유기체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쓰일 것이다.

Fechner, the only psychologist, . . . , from whom Freud ever borrowed any ideas) 라는 어네스트 존스(Ernest Jones)의 견해를 인용한 바 있다(Arnheim 44).²⁾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보다 강한 어조로 프로이트 이론과 엔트로피 법칙과의 연관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인간의 삶과 행동에 관한 이론이 엔트로피 법칙과 같은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재단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 거부감에서 연유한다(Fromm 476-7).³⁾

『패락원칙을 넘어서』가 엔트로피 법칙과 직결된다거나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식의 단정적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해당 논문을 쓰

- 2) 아르하임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와 예술』(Entropy and Art, 1971)에서, 『패락원칙을 넘어서』를 예술의 엔트로피적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 도입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 그는 프로이트와 관련된 논의에 앞서서, 페히너가 창안한 “안정성의 원칙”(Fechner's Principle of Stability)—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준—이 엔트로피 법칙을 바꾸어 말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페히너의 안정성의 원칙은, (닫힌) 계는 완전한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화를 지속해야만 하며 그 안정 지점에서는 해당 계의 내부에서 비롯된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설을 새움으로써 열역학 제 2법칙을 재진술하고 있다.

Fechner's Principle of Stability paraphrases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by postulating that a system must continue to change until full stability is attained, at which point no further alteration can be generated from the inside of the system. (Arnheim 44)

이 주제와 관련한 아르하임의 논의는 세 번째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프로이트는 『패락원칙을 넘어서』의 서두에서 패와 불패, 그리고 패락원칙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페히너의 논문 “유기체의 창조와 진화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제안”(Some Ideas on the History of the Creation and Evolution of the Organism, 187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Freud 8-9). 아르하임의 주장도 동일한 논문에서 근거하고 있다.

- 3) 프롬은 『파괴란 무엇인가』(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1973)에서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프로이트가 엔트로피와 죽음 본능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만약 그가 연관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흥분과 최소 수준으로의 에너지 감소에 대한 법칙 전체는 기초적인 우를 범하게 된다. . . . 생물과 무생물, 유기체와 사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Whether or not Freud had in mind the connection between entropy and the death instinct does not matter too much. Even if he did not, the whole principle of excitation and energy reduction to the lowest minimal level rests upon the basic error . . . of ignor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life and nonlife, between “organisms” and “things.” (Fromm 476-7,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

기 두해 전에 출간된 『유아기 신경증』(*An Infantile Neurosis*, 1918)의 마지막 장에서 엔트로피 개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IN 116).⁴⁾ 또한 그가 의사 자격을 얻기 전 브뤼케(Ernest Brucke)의 실험실에서 근무하면서 열역학 제1법칙을 대중화한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전기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프로이트의 논의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엔트로피 법칙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일이 적어도 무용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엔트로피 법칙은, 아른하임이 두 이론을 접목시킨 것과는 정확히 반대의 의도로, 프로이트 논의의 본질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점을 시사할 수 있으리라 보고 본다.

이 글은 프로이트 이론과 열역학 법칙 간의 연관 관계 하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전제로, 브룩스의 서사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을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후의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킬러들」(*"The Killers"*, 1927)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며 브룩스 서사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브룩스의 이론이 프로이트 이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밝힌다. 헤밍웨이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해당 작품이 브룩스가 서사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세기 리얼리즘 소설 계보에서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⁵⁾ 두 번째 논의에서는 엔트로피 법칙과 프로이트 이론 사이의 공통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 서사이론을 모색하기로 한다.

2.

브룩스는 「프로이트의 마스터플롯: 서사의 한 모형」(*"Freud's Masterplot: A Model for Narrative"*, 1985)이라는 논문에서, 『쾌락원칙을 넘어서』의 논의 전개 과정을 좇아 순차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한편 그 중심 내용을 자신의 서사이론에 적용시킨다. 그는 이야기의 구성을 “유한적 담화의 내적 논리”(the internal logic of the discourse of mortality)로서 파악한다(Brooks 22). 브룩스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결말의 확정성’이다. 텍스트의 끝은 시작과 함께 이미 정해져 있

4) 상기 문장의 경우와 같이, 『쾌락원칙을 넘어서』를 제외한 프로이트의 다른 논문들의 경우, 출처를 제시할 때 괄호 안에 논문 제목의 약어를 저자의 이름 대신에 쓰도록 한다. (예, *An Infantile Neurosis* → IN)

5) 서사이론 검증에 필요한 개별 작품을 선정하면서, 서사 구조 자체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소설은 우선적으로 배제하였음을 밝혀둔다.

으며, 시작의 의미도 결말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작”(beginning)과 “결말”(end) 사이의 상호 관계와 “중간”(middle)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도입한다. 브룩스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이론은 삶의 서사 구성(masterplot, 이하 마스터플롯)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프로이트 자신의 마스터플롯을 만들어낸다. 이 에세이에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삶이 시작에서 끝으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각각의 개인적 삶이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스터플롯을 반복하고 또 개인적 삶의 종결이 우발적인가 필연적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개요를 가장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constitutes Freud's own masterplot, the essay where he lays out most fully a total scheme of how life proceeds from beginning to end, and how each individual life in its own manner repeats the masterplot and confron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losure of an individual life is contingent or necessary. (Brooks 96-97)

개체 각각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여정은 해당 개체의 삶의 서사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 의해서 그 다양한 삶의 서사들이 일정한 법칙 속에 수렴되었던 것처럼, 문학 텍스트의 개별 서사들에서도 공통된 구성상의 특질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룩스는, 프로이트 논의 전개에 주된 동기가 되었던 “반복적 재현 문제”(perpetual recurrence of the same thing)를 서사 구성에 차용하여, 텍스트 상의 유사 요소를 연결해 의미를 파악하는 “바인딩”(binding) 작업에 주목한다. 즉, 텍스트의 에너지는 유사성을 가지고 표출되는 요소들의 반복적 조성을 통해서 바인딩되며, 바인딩 과정은 그 자체로 서사 구조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완결된 의미가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프로이트가 생명 현상의 즉각적 종결(죽음)을 유예시키는 생명체의 활동을 강조했던 것에서 착안해, 서사의 종결을 늦추는 스토리 구성에 관한 논평을 더한다.

바인딩이라는 어휘가 상기시키듯,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이 형식화와 인식들은 어떤 차원에서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본질적인 쾌락적 분출이 더 한층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연, 에너지 분출의 유예, 즉각적인 쾌락으로부터의 후퇴를 이루어낸다. 가장 효과적인, 혹은 적어도 가장 도전적인 텍스트는 아마도 가장 오래 지연된, 가장 바인딩이 중첩된, 가장 고통스러운 작품일 것이다.

As the word binding itself suggests, these formalizations and the recognitions they provoke may in some sense be painful: they create a delay, a postponement in the discharge of energy, a turning back from immediate pleasure, to ensure that the ultimate pleasurable discharge will be more complete. The most effective or, at the least, the most challenging texts may be those that are most delayed, most highly bound, most painful. (Brooks 101-102)

창작자는 텍스트 에너지의 극적 분출을 지연시켜 완성도 높은 서사의 종결을 이루어 내려 한다. 반복된 바인딩 작업은 이 본질적 쾌락을 연기(delay)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획득해낸다. 바인딩의 배치는 그 자체로 텍스트의 플롯을 이룬다. 다시 말해, 플롯은 “분출에 대한 분리, 이탈, 지연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plot itself stands as a kind of divergence or deviance, a postponement in the discharge)이다(Brooks 103).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브룩스의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서사의 절정(climax)에서 갈등의 해소와 감정의 연소가 일어나며 이로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전제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극적 전환 지점에서 “쾌락적 분출”(pleasurable discharge)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사는 종극의 분출에 의해서 결국 종결에 이른다. 긴장감 있게 직조된 갈등들이 마침내 작품의 클라이맥스에서 해소되고 사건의 내막이 총체적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이야기가 종결되는 식의 줄거리를 가진 소설들은, 대체로 브룩스가 상정한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 브룩스가 탐정소설이나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에 특히 주목했던 것은 이들 소설류의 구조적 전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서사구조의 전복을 꾀한 포스트모던 소설이나 여전히 사건과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결말을 고하는 전위 영화, 뚜렷한 극적 전환 없이 이미지의 나열만으로 전개되는 단편 소설, 등에까지 브룩스의 서사구조를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브룩스 서사이론의 한계는, 헤밍웨이의 「킬러들」처럼 사실주의 소설 계보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킬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브룩스가 상정하는 “쾌락적 분출”이나 “극적 전환”(climax)의 순간을 담고 있지 않다. 등장인물 간의 긴장은 전반부에서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에는 그 긴장이 소강하는 식의 구성을 갖고 있다. 브룩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분출”은 없고 “지연”만이 계속되는 식이다. 닉 애덤스(Nick Adams)가 올 앤더슨(Ole Andreson)을 만나 살해 위협을 알리는 장면은 서사의 전환점에 해당하지만, 그 전환은 사건의 해결이나 갈등의 해소를 이끌지 못한다. 왜 두 명의 킬러들이 올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건의 전말은 끝까지 제시되지 않

며, 올은 무심히 벽만 쳐다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There isn't anything I can do about it)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⁶⁾ 예정된 죽음을 무력하게 기다리는 인물의 모습과 작가의 건조한 문체가 자아내는 비정한 분위기는 브룩스가 말한 텍스트 에너지의 분출과는 거리가 있다.

이 작품을 너이 악(evil)을 발견하는 이야기로 파악한다 해도, 그가 시내를 떠날 것을 결심하는 결말을 단순히 각성(awakening)에 의한 완결성 있는 행동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나 여기 읍내를 떠날거야.” 너이 말했다.

“그래” 조지가 말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야.”

“곧 살해당할 걸 알면서, 방안에 처박혀 기다리고 있는 그치에 대해서 떠 올리는 일 따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쟤장, 그건 너무 끔찍해.”

“그래.” 조지가 말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낫지.”

“I m going to get out of this town,” Nick said.

“Yes,” said George. “That’s a good thing to do.”

“I can’t stand to think about him waiting in the room and knowing he’s going to get it. It’s too damned awful.”

“Well,” said George, “you better not think about it.”

(Hemingway 231)

작품의 초반과 달리, 마지막 장면은 너이 인간사의 비정과 무력함(올의, 그리고 자신의)을 경험하고 난 이후를 그린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현실에 대한 과감한 저항도, 적극적 회피도 아닌 모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그마저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너의 심경 변화만을 위주로 소설을 읽는다면, 올을 만나 무력과 환멸을 경험하게 된 이후, 주인공의 감정은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뚜렷한 해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그렇다고 결코 특정한 행위나 사건을 통해 발산되지도 않는다. 너의 충격과 환멸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서사는 급격히 종결된다.

한편, 사건과 갈등을 위주로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총체적 전환은 소설 내에 부재한다. 「킬러들」의 클라이맥스는 오히려 초반부, 두 명의 킬러가 찾아와 위협이 섞인 시시한 농담을 건네는 헨리(Henry)의 가게 장면에 있다. 정보

6)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올 앤더슨은 캐릭터 그 자체로 프로이트 논의의 전제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모든 개체는 궁극의 죽음을 향해 삶을 진행시키며, 종말은 필연적인 것이다.

를 장악한 킬러들과 무방비 상태의 너 일행, 그리고 역시 사건의 내막에 무지한 독자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지만, 촉발된 갈등과 긴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강도가 약해질 뿐,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너 일행과 독자는 결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서사의 종결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서사 구성에 있어서 극적 전환점은 「킬러들」의 경우처럼 부재하거나, 혹은 편재할 수 있다. 브룩스의 서사 모델은 이와 같이 플롯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용하기에 단선적인 측면이 있다. 서사적 욕망이 자극(arousal), 발현되고, 자극된 욕망이 '뚜렷한 분출 지점을 중심으로 해소' 된다는 브룩스의 도식에는 남근주의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브룩스 서사 이론에 대한 비판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야기나 삶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가능한 상태로, 긴장 속으로, 이야기 서술을 요구하는 일종의 흥분 상태로 자극받는 순간으로부터 플롯은 시작한다. 나는 앞서서 서사적 욕망, 그 자극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것은 이야기 가능한 상태의 대상을 팽창, 욕정, 열망 탐색의 상태로 만들며, 이야기에 전진적인 의도를 부여한다.

plot starts from that moment at which story, or life is stimulated from quiescence into a state of narratability, into a tension, a kind of irritation, which demands narration. I spoke earlier of narrative desire, the arousal that creates the narratable as a condition of tumescence, appetency, ambition, quest, and gives narrative a forward-looking intention. (Brooks 103)

발기된 서사적 욕망은, 서사 진행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 욕망이 해소되는 지점을 향해서 이야기가 성립한다. 브룩스의 이론 하에서, 서사의 종결 혹은 극적인 전환은 "분출"(discharge)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그렇다면 극적 전환이 부재하는 이야기들의 경우, 서사적 욕망은 결코 해소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브룩스가 강조한 '서사적 욕망의 해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야기는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작품들의 플롯과 브룩스 서사 모델 사이의 괴리는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브룩스가 서사 이론을 전개하면서 참고한 프로이트 이론 역시 다양한 '삶의 서사 구조'를 포용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위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우선 두 이론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브룩스는 극적 전환의 순간을 유예시키는 바인딩의 과정에 주목하여 서사의 진행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인딩의 과정에서 "지

배”(mastery)가 일어난다. 브룩스는 “지배” 개념을 역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직접 차용하여 쓰고 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지배”를 언급하고 있는 맥락과, 브룩스가 그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맥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일부 반복강박 사례와 어린 아이들의 놀이 — 사라짐과 돌아옴 (disappearance and return)이라는 — 를 설명하면서, ‘반복을 통한 지배’에 의한 쾌락에 주목한다. 즉, “어린 아이들은 자신을 압도하는 불쾌한 경험을 되풀이함으로써 능동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At the outset he was in a passive situation—he was overpowered by the experience; but by repeating it, unpleasurable though it was, as a game, he took on an active part.)이다(Freud 16). 비록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지만, 그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상황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능동성 획득’은 그 자체로 쾌락의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삶의) 본질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같은 것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상태’는, 그것이 관련된 사람의 능동적인 행동과 연관된다거나, 그에게서 어떤 근본적인 특성 — 항상 같은 상태로 남아 있고, 동일한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 — 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주체가 수동적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에서 훨씬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 때, 주체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같은 숙명의 반복과 만나게 된다.

This ‘perpetual recurrence of the same thing’ causes us no astonishment when it relates to active behaviour on the part of the person concerned and when we can discern in him an essential character-trait which always remains the same and which is compelled to find expression in a repetition of the same experiences. We are much more impressed by cases where the subject appears to have a passive experience, over which he has no influence, but in which he meets with a repetition of the same fatality. (Freud 22)

슬픈 경험을 환기시키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쾌락을 ‘지연’시키는 경험은,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행위의 주체를 그 행위의 ‘능동적인 지배자’로 만든다. 그러나 “능동성”이나 “지배”는 쾌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요컨대, ‘반복을 통한 지배’는 회귀와 죽음 본능으로 특징 지워지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아이들의 놀이를 자

세히 소개하며 반복 강박과 주체의 지배 과정을 설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가 '대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치치기하는 예외적 사례이다. 그러나 브룩스는 바로 이 '반복을 통한 지배'를, 종결의 유예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논문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배의 주장으로서의 반복(아이들의 놀이에서 수동성이 능동성으로 향하는 항로에서와 같이)에 대한 가설로부터 출발해, 반복이 역동적인 불변의 상황—지배의 출현과 지연의 가능성을 허용할)을 창조하기 위한 바인딩의 여정으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개념에 도달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We may say that at this point in the essay we have moved from a postulate of repetition as the assertion of mastery(as in the passage from passivity to activity in the child's game) to a conception whereby repetition works as a process of binding toward the creation of an energetic constant-state situation which will permit the emergence of mastery and the possibility of postponement. (Brooks 101)

브룩스가 서사 진행과정에서 강조하는 “지배”를 프로이트의 사례(아이들의 놀이)에 유비하여 적용해 보면, “지배”의 원천, 즉 ‘바인딩에 의한 종결의 유예’는 플롯 상 불쾌에 해당하며, “최종 분출”에 의한 종결은 쾌락과 연결된다. 브룩스는 서사의 종결을 설명하면서 분출이라는 상승적 전환 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프로이트가 생명 현상의 종결에 쾌락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종결 이후의 “평정”(equilibrium)과 관련해서 이다. 그러나 브룩스의 서사 구조에 있어서 쾌락은 분출 자체에 해당한다. 사실상,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유기체의 죽음은 ‘하향적 소강’(subsiding)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브룩스의 “분출” 같은 상승적 전환은 “죽음 본능”(death instinct)과 “생명 본능”(life instinct) 사이의 역학 구도 하에서 “우회”(detour)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 우회는 생명체에 따라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즉 그들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브룩스 서사구조의 보완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엔트로피 법칙으로 돌아가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볼 일이 남았다.

3.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유기체가 무기물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보수적인 관성의 힘에 주목하여, 이를 죽음 본능이라 칭한다. “모든 살아있는 물

질은 내적 원인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all living substance is bound to die from internal causes)라는 가설은 생명계 전반의 움직임을 아우르는 원리로서 작용한다(Freud 44). 한편, 열역학적 맥락에서, 물질계의 에너지 흐름도 엔트로피의 증가, 즉 “사용가능한 에너지”(available energy)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우주의 질서와 가치는 무질서와 혼돈으로의 한 방향으로만 변화한다. 우주는 결국 최대 엔트로피에 이르고,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완전한 고갈로 세계는 더 이상의 활동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리프킨 328).

그러나 엔트로피 법칙의 속성이 막연히 물리적 혼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른하임은 엔트로피 법칙을 단순히 “기계적 무질서로 향하는 경향”(a tendency towards mechanical disorder)으로 기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Arnheim 35). 그에 따르면, 생물체의 “파괴적 이화 작용”(catabolic destruction)에서 물질의 분배는, “덜 그럴법한 수준”(a less probable)에서 “더 그럴법한”(a more probable) 수준으로 진행된다. 즉, 이화의 양태는, 그것이 비록 파괴를 향할 지언정, 그 파괴의 흐름 속에 사실상 일종의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른하임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엔트로피 극대 지점에서의 “평형 상태”(the equilibrium state)이다. 평형 상태는 엔트로피, 즉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최대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생활의 일정한 경향으로 지적한 “열반원칙”(Nirvana principle) 역시 내적 긴장의 축소에 의한 평형을 추구한다.

정신 생활, 그리고 아마도 일반적인 신경 생활의 지배적인 경향은 자극에서 비롯한 내적 긴장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지속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이다(바바라 로우의 용어를 빌리자면, ‘열반원칙’). 그것은 쾌락원칙 속에서 발견된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죽음 본능의 존재를 믿는 강력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The dominating tendency of mental life, and perhaps of nervous life in general, is the effort to reduce, to keep constant or to remove internal tension due to stimuli(the ‘Nirvana principle,’ to borrow a term from Barbara Low) -a tendency which finds expression in the pleasure principle; and our recognition of that fact is one of our strongest reasons for believing in the existence of death instincts. (Freud 56)

프로이트에 따르면, 내적 긴장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려는, 정신 혹은 신경계의 경향은 죽음 본능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유기체가 무기물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과정의 원동력은 바로 긴장을 축소시켜 평형, 즉 죽음에 도달하려는 내

적 본능들이다. 그것은 유기체의 근원적이고 지배적인, 주요한 경향인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더 이상의 에너지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엔트로피 최대의 평형 상태'를 향한 물질계의 원리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리즈만(David Riesman)은 이 같은 유사성에 착안해, "프로이트가 엔트로피적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이해하였음이 분명하다"(It seems clear that Freud, when he looked at love or work, understood man's physical and psychic behavior in the light of the physics of entropy)라는 주장을 펼친바 있으며, 아른하임은 그의 견해를 논의의 중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Riesman 325, Arnheim 45).

나는 여기서, 평형의 '일방향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엔트로피 법칙에서나 프로이트의 논의에서나, 모든 움직임은 종국의 목표를 향한 '일방향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죽음'을 향한다거나,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소진'된다거나 하는 '하향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음 본능에 대해 삶을 유지시키려는 본능은 보수적인 죽음으로의 여정을 "우회"(detour)시키거나 "지연"(postponing)시킬 뿐이지, 그 흐름에 역행하는 진로를 만들 수는 없다. 엔트로피 법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자원 고갈(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의 증가)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혁신적 기술을 고안해 내지만, 그 기술로 인한 자원의 회수는 고갈된 자원의 양을 넘어설 수 없다. 즉, 인간의 활동이 엔트로피의 '증가 쪽'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의 흐름 그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엔트로피에 관한 연구자들이 흔히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물질세계의 사멸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발전 위주의 세계관에 수정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⁷⁾

프로이트 역시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진보적 세계관에 대해 거듭 회의를 표하고 있다. 발전 '지양'적 본능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의문에 대해서, 그는 생물학적 차원의 반론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발전의 한 단계를 다른 것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 그것은 종종 단순히 의견의 문제이기도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물학은 우리에게, 한 측면에서의 더 앞선 발전이 매우 종종 다른 측면에서의 퇴화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거나 역전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7) 엔트로피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과학적 메시지를 도출해 낸 최근의 사례로는 제레미 리프킨과 잭 호키킨 등이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잭 호키킨의 『물질세의 과학: 기술 문명에 던지는 엔트로피의 경고』 참조.

But on the one hand it is often merely a matter of opinion when we declare that one stage of development is higher than another, and on the other hand biology teaches us that higher development in one respect is very frequently balanced or outweighed by involution in another. (Freud 41)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한 정치적 과정이다. 그것은 관점의 불일치 문제를 일으키며, 무엇보다도 한 측면의 발전이 다른 측면의 퇴화에 의해서 상쇄되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발전은 역설적으로 퇴행적인 흐름 속에 수렴된다. 엔트로피의 일시적 감소가, 전체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열역학적 논리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에너지의 흐름도, 유기체의 생명 현상도 '역전 불능'(irreversibility)의 일방향적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 궤도의 끝에서 유기체의 삶은 종결되고, 그들은 무기물로 회귀한다.

이처럼 일방향적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각기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에너지 소모를 유예하고 지연시킨다. 무기물로 돌아가는 원시적 경로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유기체는 오직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죽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생명의 수호자들 역시, 본래 죽음의 충실한 종자였다. 그리하여 이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 삶의 목적을 일종의 단락(短絡)에 의해서 재빨리 성취하는 데 기여할 사건들(사실상, 위험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What we are left with is the fact that the organism wishes to die only in its own fashion. Thus these guardians of life, too, were originally the myrmidons of death. Hence arises the paradoxical situation that the living organism struggles most energetically against events (dangers, in fact) which might help it to attain its life's aim rapidly-by a kind of short-circuit. (Freud 39)

유기체의 생명 현상, 즉 삶의 여정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를 거부하며, 각기 저마다의 방식으로 죽음을 유예하는 삶의 우회로를 창조해 간다. 목적의 달성을 얼마만큼 지연하고 또 우회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죽음에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유예와 우회의 과정은, 그것이 삶의 종결지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다름 아니다. 역전 불능의 삶의 궤도

에서 유예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일시적 상승은, 상승인 듯 보이나 결국 하락의 흐름 안에서 포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형의 일방적 흐름이 '하향성'이라는 성격을 갖게 됨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여기에서 다시 브룩스의 서사 이론으로 돌아가 본다.

생명체가 "그들만의 방식"(in its own fashion)으로 죽음을 향해 가듯이, 각 작품의 서사는 이야기의 종결을 향해 자기 고유의 우회와 유예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곧 해당 작품의 플롯이 된다. 브룩스 역시 결말에서의 "평형"(equilibrium)에 대해 주목했었지만, 그 평형을 유도하는, 긴장과 갈등의 해소가 일회적인 극적 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판단했다. 브룩스가 강조하는 "분출"이라는 용어는 '하향적' 일방향의 흐름을 거스를 만큼의 상승적 기운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욕망의 고조 지점에서 그 욕망의 일회적 배출을 통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식의 남근주의적 사고에 간혀 있다.

나는 여기서 '분출' 대신에 '사그러들'(subsiding)이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의 개별 서사는 대체로 긴장과 갈등이 진정되는 차원에서 종결되며, '사그러들'의 속도와 기울기에 따라서 극적 전환 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서사의 클라이맥스는 결말 직전뿐 아니라 작품의 서두를 포함해 스토리 전체에 "작품 고유의 방식"(in its own fashion)으로 존재할 수 있다. 클라이맥스는 편재하며, 한편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그러들'은, 이를 영역한 'subsiding'에서 보듯, 진행 중인 양태적 개념이기도 하다. 즉, 작품의 종결이 서사의 종료가 아닌 독자의 내면에서 역시 독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마스터플롯 하에서는, 앞서 예시한 「킬러들」에서처럼, 작품의 결말에서 사건의 해결이 유보되거나 인물 내면의 긴장과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서사의 경우도 충분히 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을 넘어서』와 엔트로피 법칙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브룩스 서사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생각해보았다. 나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 제시된 프로이트 논의의 핵심이 "생명 과정의 역불능성"(irreversibility)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방적 흐름 속에서,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종결의 유예를 도모한다. 양립한, 그러나 언제나 한쪽의 승리가 예비 되어 있는, 두 상반된 힘(죽음 본능과 삶 본능) 사이에서 생명체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에 다다른 유기체에게는 고군분투 이후의 평정이 주어진다. 서사의 마스터플롯도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 그것은 텍스트 고유의 방식대로 다양한 형태의 극적 전환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우회의 과정 이후에는, 작품 내에서건 독자의 내면을 통해서건, 완성된 종결에 의한 평형 상태

를 이룬다.

참고문헌

리프킨, 제레미(Rifkin, Jeremy). 『엔트로피』. 김명자, 김건 옮김. 동아출판사. 1995.

호키키안, 잭(Hokikian, Jack). 『무질서의 과학: 기술 문명에 던지는 엔트로피의 경고』. 진대호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4.

Arnheim, Rudolf. *Entropy and Art: An Essay on Disorder and Order*. London: U of California P, 1971.

Brooks, Peter. *Reading for the Plot: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New York: Vintage, 1985.

Schrödinger, Erwin. *What is Life? and Mind and Matter*. New York: Cambridge UP, 1967.

Hemingway, Ernest. "The Killers." *Modern Short Stories*. Seoul: Tamgudang, 1998.

Freud, Sigmun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24 Vols. Tr. and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 1953-74.

Fromm, Erich.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Riesman, David. *Individualism Reconsidered*. Glencoe: Free P, 1954.

ABSTRACT

Death Instinct, Entropy, and Beyond Brooks' Masterplot

Hyoseon Kim

This essa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Brooks' phallic view in his narrative theory is a result of his limited interpretations on Freud. The argument is based on the close similarities between Freud'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The Entropy Law). These theories all postulate "the equilibrium state" just before the ends of living activities and emphasize "the one-way flows" of life and energy. Brooks also lays particular stress on the equilibrium of story, but it is attained only after "the discharge" at the dramatic climax of the narrative. On the contrary, in Freud's theory, an organism can reach it's own equilibrium not in the upward movements such as discharging and developing but in the downward movements like subsiding and atrophies.

The arguments of this essay are mainly divided into two sections. First, analyzing Hemingway's "Killers" and Comparing Brooks' theory to Freud's, the essay points out the limits of Brooks' narrative plot. Secondly, examining in detail the similarities between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and The Entropy Law, the essay explores an alternative to replace Brooks' narrative model. Instead of Brooks' "discharging," I rather focus on the concept of "subsiding." I confidently expect that the new masterplot based on this concept can explain more various narrative plots.

Key Words pleasure principle, death instinct, entropy, Brooks' narrative plot, binding, delay, discharge, subsiding, equilibrium.